

# 달라지는 놀이

어린이들의 놀이는 마음대로 조작하고 변형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도구와 재료를 만날 때 새로운 상상력으로 채워진다. 이런 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조각, 천 조각, 종이 박스, 플라스틱 뚜껑과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나무 팔레트, 감귤 박스, 전기 케이블 보빈, 그물, 버려진 진공청소기나 노트북과 같이 다양한 것들로 확장할 수 있다.

개방적인 재료(loose parts)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재료는 어린이들의 집중력, 창의적 경험, 팀 빌딩, 협력, 효과적인 의사소통, 공유 및 협동, 문제 해결력과 같은 역량을 향상하고,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워든 놀이가 될 수 있는 개방적인 재료에는 정답도 오답도 없다.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이런 놀이 재료를 자신의 놀이 목적에 맞게 이동하고 수정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어, 실패를 맞보지 않고 오히려 실험의 스펙트럼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영국의 공립 학교에선 놀이 시간에 개방적인 재료를 학교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에 집 안에 있는 장난감을 썩 치워 버릴 필요는 없다. 인형, 소꿉놀이와 같은 장난감은 놀이 주제를 한정시켜 수렴적 사고 발달을 돕는 반면, 구조성이 낮은 개방적인 재료(loose parts)를 활용하는 경우 놀이감을 자유롭게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확산적 사고 발달에 도움을 준다. 문제는 놀이감이 균형 없이 한쪽으로 쏠린 경우다. 놀이감의 구조화 수준을 낮추는 개방적인 재료는 어린이의 상상에 따라 의미 있는 놀이로 발전할 수 있는 재료들이다. 놀이에 참여하는 어린이는 재료를 사용해 이야기를 만들고, 친구와 역할을 나누고 소통하며 놀이의 주인이 된다. 이런 재료는 단지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재료를 조작하는 열린 놀이 환경은 STEM 교육이 지향하는 메이커 교육과 맥이 닿아 있다.

놀이 재료의 수집에서 놀이는 시작된다. 목재, 금속, 유리, 직물과 같이 다양한 색깔과 질감을 가진 재료들을 찾아보자. 집이나 주변에 버려진 것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 발견하는 재료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 자연환경, 다양한 일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재료의 성질을 탐구하고, 재료의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모든 재료를 분류하고 정리하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만의 예술(놀이)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상상하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재료가 새롭고 흥미로운 놀이 방법을 자극한다. 놀이에서는 '올바른 길'과 '잘못된 길'이 없다. 버려진 박스로 지은 집을 우리 멋진 집이라 소개를 한다 해도 놀이판이라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 개방된 재료로 놀이를 시작하는 법

- 연령과 관심사에 따라 어린이가 원하는 재료는 달라질 수 있어요. 재료 목록을 만든 뒤, 집과 마을 주변에서 재료를 찾아보세요.
- 놀이를 지켜보는 보호자나 선생님은 어린이가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개방된 재료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추가로 다른 재료를 보충해 주세요.
- 재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가위나 풀, 테이프부터 삽, 쟁이, 드릴, 망치, 톱도 그 범위에 속합니다. 어린이는 충분히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스스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개입은 최소로 해 주세요. 외부에서 부과되는 규칙이 적을수록 어린이는 아이디어와 호기심이 발동해 더 깊이 관여해 보다 다양한 활동을 시도합니다. "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약간의 질문과 반응이면 족합니다.
- 어린이는 만들고 부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재료들을 연결하고 해체하며 놀이를 이어 갑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다양한 놀이 타입과 연결하도록 촉진합니다.
- 개방된 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용기를 준비해 주세요. 재료를 담은 용기는 나무 상자, 캔버스 재질의 천 상자 같은 천연 도구로도 좋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일회용 식품 용기, 계란상자와 같은 용기도 재료를 담은 용기로 좋습니다.
- 알레르기나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재료들의 사용은 항상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 Play to Learn, Learn to Play

어린이들은 놀이를 하며 주변 환경, 특히 자연과 사람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을 갖춘다. 또한 친구들과 무언가를 만들며 소통할 때 서로 배우고, 정서적인 안정감과 응통성을 발휘해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이때 어린이들은 놀이판에서 현실을 만들고 느끼며 경험하는 기회를 얻는다. 놀이 커뮤니티 기획자(playmaker)로서, 커뮤니티 안에서 어린이들이 실패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놀이판을 만들어 가는 행동하는 어른으로서, 교실 안에서 배울 수 없는 'Play to Learn, Learn to Play'(놀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논다)를 실현하고 있다. 수많은 놀이판을 열며 어린이들에게 놀이가 가진 본질과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매순간 배운다.

글 **오은비** 팝업 플레이 서클  
'놀이의 가치를 커뮤니티 안에서 실현합니다'를 실현하는 놀이 커뮤니티 기획자



## 우리 화성에 가볼까?

25명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과 함께 물과 공기가 없는 화성은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며,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한 활동을 함께 만들어 가는 놀이판을 열었던 적이 있다. 나 자신(Identity), 친구들(Others), 그리고 주변 환경(Circumstance)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며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상상하도록 했다.

"빨래는 어떻게 하고, 버는 어떻게 기르지?"라는 질문이 서로 오갔다. 처음엔 화성에서 타고 다닐 탱크를 만들었는데, 이 질문에 어린이들은 탱크를 부쉬 화성에서 쓸 수 있는 세탁기와 세탁기에서 배출된 물로 버를 키워 내는 눈을 만들었다. 다른 친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급속 충전되는 배터리가 있는 태양광 패널이 달린 집을 만들었고, 예약 시스템이 갖춰진 우주정거장 휴게소, 그리고 우주의 신들과 귀신들이 모이는 신전을 만들기도 시작했다. 참여한 어린이들의 일부는 빨래를, 또 다른 친구들은 우주정거장 휴게소 맷발을 들고 모객을 위한 영업을 했고,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 어린이들은 마치 화성 저 먼 별나라에서 사는 사람처럼 주변 환경에 공감하고 친구들과 함께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 놀이판에서 질문을 던진다.

곽지 해수욕장에서 '해양 쓰레기를 탐험하다'는 주제로 해양 쓰레기를 탐험하며 해양 쓰레기 문제를 공감하는 놀이판을 열었을 때다. 쓰레기를 줍는 과정에서 해안가에 버려진 담배꽂이와 맥주 캔을 보고, 어린이들은 "어른들은 왜 이렇게 막 버리는 거예요?"라고 화를 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하기 시작했다. 몇몇 어린이들은 바닷물 속에 잠겨 있는 나무를 발견하고 집의 뼈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생물 탐험을 즐기는 친구는 바다에서 발견한 생명체를 관찰하다 죽은 복어, 조개들을 물으로 꺼냈다. 갑자기 해변 한쪽에서 어떤 아이가 "여기 죽은 오리가 있어!"라고 외치자 모두 달려갔다. 나이가 더 많은 친구가 주도하여 한쪽에선 바닷물에 오리를 씻어 주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양지바른 곳에 무덤을 재빠르게 파기 시작했다. 모두가 하나의 팀이 되어 오리를 묻어 주며 '2019년 4월 12일 토요일, 꼬꼬 잠들다'라는 풋말과 함께 하늘에서는 아프지 말고 잘 살라는 기도를 했다. 놀이판을 시작할 때 어린이들이 잘 알지 못했던 해양 쓰레기와 바다 오염으로 고통받는 생태 동물들의 사진을 보여 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이들은 그 이야기를 기억해 내고는 자신들이 사는 제주 바다에서 죽은 이 오리는 왜 죽게 되었는지 난상 토론을 벌였다. '기를 때문이다' '쓰레기를 잘못 먹었다' 또는 '물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다' 등 다양한 이야기로 오리가 죽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생명체의 삶과 죽음을 느끼고 해양 스

## 추천도서

### + 육아와 부모들이 같이 읽어 보길 추천하는 책



**아이의 사회적**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타인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오늘날 어린이들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 책에서는 '사회력'을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사회를 만들어가는 힘'으로 제시한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의 교육력을 높인다는 것은 아이들의 사회력을 형성하고 강화한다는 것이다." (p.244)  
기도와키 아쓰시 지/김수희 역  
AK(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 + 자녀와 부모가 함께 읽기 좋은 책



**세상의 발견: 어린 탐험가들의 보고서**  
세상 모든 것이 탐구 대상이자 놀이 대상인 어린이들에게 평범하고 시시한 일은 없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세상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에 연재된 작품과 글을 모아 한 권의 그림책으로 묶어 냈다. 80점의 그림에는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이 얼마나 다채롭고 아름다운지 담겨 있다. 그림 하나하나마다 짙은 글귀로 전하는 이야기는 책을 읽는 이의 허겁지겁 다른 이야기를 상상하게 한다.  
조이스 진 저, 문학과 지성사

### + 지역 안에서 놀이 공간을 모색하는 이들과 함께 읽기 좋은 책



**마을이 함께 만드는 모험 놀이터**  
그네, 미끄럼틀, 시소, 고무 탄성 바닥. 지금의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천편일률적이다. 이 책에서는 놀이터의 역사와 모험 놀이터의 다양한 사례를 제안하며, 어린이들의 진짜 놀이터는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의 프로젝트라고 설명한다. "우리의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놀이 활동이 매우 적다. 아이들을 단지 놀이 기구의 단순 이용자나 키즈 카페의 소비자라 되도록 만든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가능성을 발휘하고 성장하도록 더 다양하고 과감한 놀이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 (p.205)  
김성원 저, 빨간 소금

레기 문제가 어떻게 생태계를 아프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많은 질문을 던졌다.

## 도전하고 실패하며 공감 할 수 있는 기회 만들기

커뮤니티 안에서 놀이판을 여는 것은,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그가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잘 사는(well-being)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실패할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코로나 19와 같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발생,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성이나 다문화(다양성)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되는 끔찍한 사건들 등 현실의 문제는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른다. 어린이가 현실의 문제들을 공감하고 소통하며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어른들은 어떤 행동을 함께해야 할지 깊은 숙고와 필요하다. 플레이메이커로서 놀이판에서 행동하는 어린이길 다짐한다.